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 8 | 제175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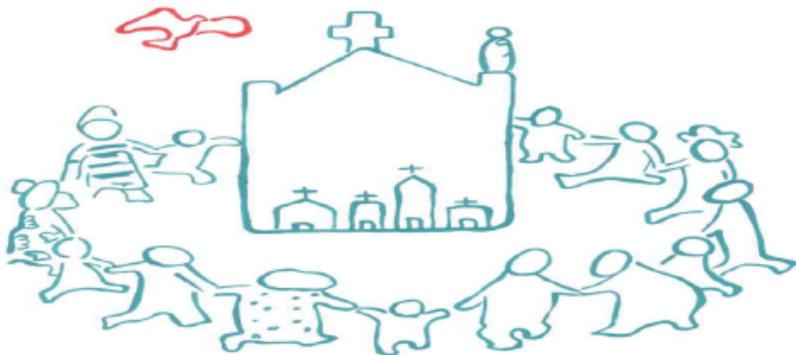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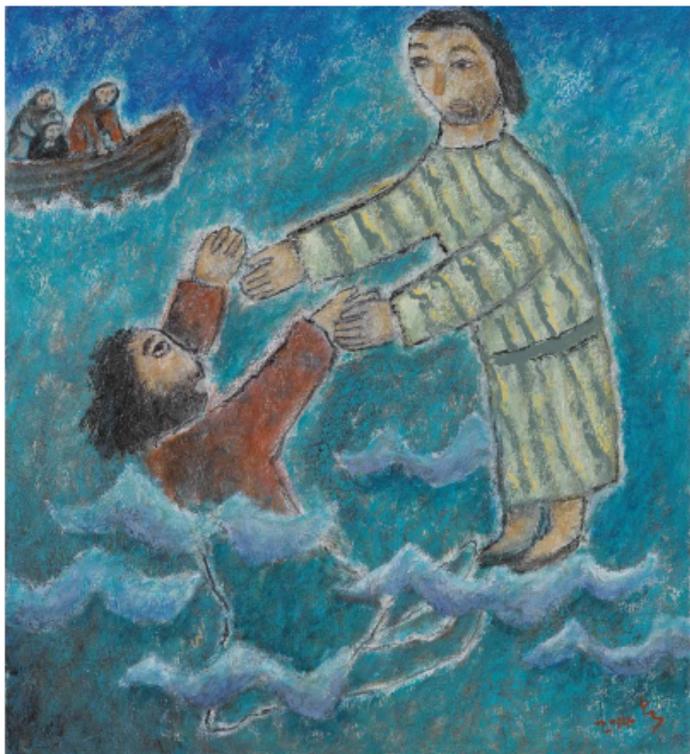
[진행]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나누기

연중 제19주일(8월 13일)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33)



베드로와 예수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8. 10.)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마태14,31-32)

캄캄한 밤의 풍랑은 자연의 위협, 악의 세력,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세상 안에서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0번 “믿음으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믿음을 더해주시시오.
- 주님, 저희가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2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마태 14,23)

나는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고, 거룩한 곳을 찾아 듭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마태 14,30)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당신은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보고 열광하는 신앙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쩌면 당신께 열광하는 군중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일깨워주시는 듯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겠지요. 내 마음에 들면 믿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뒤에야/진계유

고요히 안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침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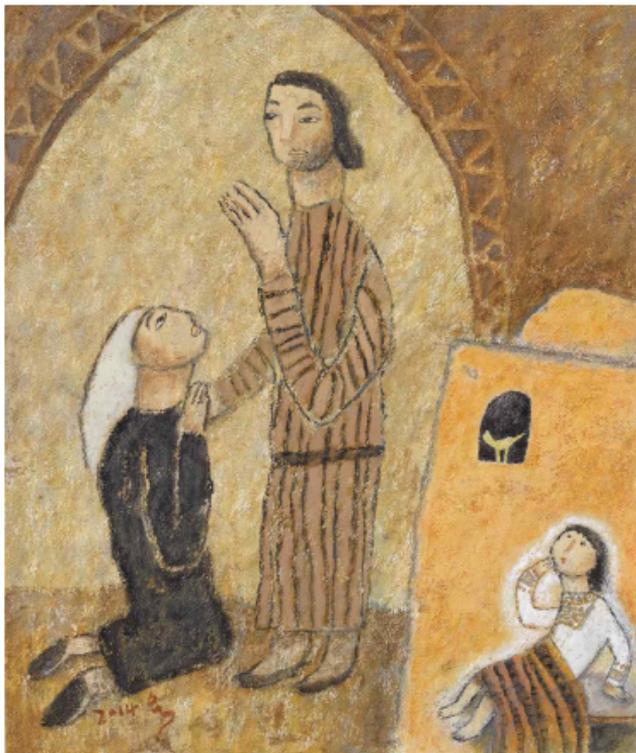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480번 "믿음으로"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나누기

연중 제20주일(8월 20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태 15,21-28)



한 여인의 믿음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 서울주보, 2014. 8.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마태 15,28)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항구하게 어떠한 처지에서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분께 희망을 둔다면 주님은 크나큰 사랑과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2번 “위험에 빠진 자에게”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태 15:22)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마태 15:27)

나는 내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며 항구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은 자신의 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에서 "사랑하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만난 가나안의 어떤 부인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 부인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매달립니다. 사랑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은 어떤 반대와 역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개 취급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향구한 믿음이 사랑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굳건해지고,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7)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우리는 함께입니다.

의령성당 구역분과장 정설애(브리짓다)

저희 의령 성당은 1966년 함안 성당에서 분리되어 57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로, 8구역 9개 소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2개 소공동체가 매월 구역 미사와 소공동체 모임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구역 구성원들이 본당 미사 안내를 비롯하여 전례에 참여하고 선교하며, 구성원들과 대소사도 서로 나누고 위로와 친교도 활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공동체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본당 특성상 장년과 노년의 구성이 대부분입니다. 소공동체장도 평균 70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방문이나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공동체장들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병환 중에 있는 교우분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외로움을 나누고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을 생활화하여, 교우들의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미사 참여가 저조할 때에도 소공동체장들이 먼저 참례하며 함께하기를 독려하여,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본당의 성지순례나 나들이를 통하여 코로나로 제약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도 되찾고, 교구에서 실시하는 은빛 여정과 성경 입문 과정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한 조심스레 방문하던 병자 여성체도 횡수를 늘려가고, 환자 방문이나 가정방문도 서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하며 반원들과 꾸준한 식사도 같이 하며 이야기 나누고, 김장 등 어려운 일도 서로 도우며 김치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노년 인구가 많다 보니 장례도 잦아, 본당 소공동체원들이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하며 기도와 봉사로 위로를 나눕니다. 어버이날에는 본당에서 준비한 빵을 구역 어르신들과 나누며, 구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가정들에게 본당 빈첸시오회와 복지분과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후의 변화도 확인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공동체 모임이 재개되어, 활성화를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작지만 따뜻하고 사랑의 의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궁금했어요

전례주년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례주년 안에서 교회는 강생에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거행한다. 아울러 정해진 날에 교회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공경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도 기억한다.

해설

전례주년 곧 대림 시기로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는 우선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 하나를 전체적인 관련성 안에서 경축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여러 축일도 경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조명된다. 성인 축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들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 곧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이므로 전례주년의 큰 틀 안에서 기리게 된다.

용어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의 가장 빛나는 칭호다. 마리아는 복된 분이며(루카 1,42.48). 하느님의 어머니(루카 1,43 참조)로 공경받는다. 복되신 마리아, 천주의 성모 축일은 성탄 8일 축제의 끝인 1월 1일에 지낸다.

시간 전례란 무엇인가?

교회의 공적이며 통상적 기도인 시간 전례(성무일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시간 전례를 통하여 매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 기도는 주로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 그리고 교부들과 영성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오늘 하루는 거룩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매우 좋은 시간이다. 교회는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시간 전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루카 18, 1 이하)과, 사도(1테살 5,17)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시간 전례는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삼시경·육시경·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로 되어 있다.

용어

시간 전례 또는 성무일도

시간 전례 또한 전례 곧 온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다. 성무일도(거룩한 업무)라고 한 것은 성직자들이 매일 꼭 바쳐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지만, 이제는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바쳐야 하는 전례적 기도 이므로 ‘시간 전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교부들과 영성가들

초기 교회의 스승이자 저술가들을 교부라 부르며, 성령 안에 새 삶을 산 거룩한 사람들을 영성가라고 부른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